



편집인 칼럼

# 가을 드넉에서 쌀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 최운홍/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이밥(쌀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리밥이나 조밥이 아닌 이밥은 고깃국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쌀은 밀, 옥수수과 함께 세계 3대 주요곡물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통 틀어서 오곡(五穀)이라고 합니다.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무르익는 청명한 가을은... 삶이 윤택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듬뿍 느끼게 해주는 가을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쌀밥뿐만 아니라 쌀로 만든 모든 음식을 귀한 것으로 여겨 쌀로 만든 떡, 쌀로 빚은 술, 쌀로 만든 과자들을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혼을 지닌 곡식이고 오곡백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해가 길어지는 2월에서 8월까지의 하루 세끼 밥을 먹었고 해가 짧아지는 10월에서 정월까지는 점심을 거르고 두 끼만 먹었다고 옛 농서에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볏씨가 발견된 것은 쌀의 민족사적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찌보면 쌀을 지키고 쌀을 확보하기 위한 기나긴 과정이었던 지도 모릅니다. 논 값을 말할 때도, 월급을 얘기할 때도, 소를 사고 팔 때도 쌀로 환산할 정도로 모든 생활의 가치와 기준이 쌀로 정량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정령(精靈)의 곡식이었던 쌀이 이제는 남아돌아 재고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수입량은 늘어나고 쌀 소비량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이 1980년 132kg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2007년에는 77kg까지 떨어졌고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4만5000호인 농가수가 2019년에는 103만8000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310만1000명인 농가인구는 2014년에 270만6000명, 10년뒤인 2019년에는 235만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대비 농가인구 비율도 계속 떨어져 2009년 6.4%에서 2019년에는 4.8%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쌀 재배면적도 2009년 92만9000ha에서 2019년에는 84만3000ha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쌀 주요 생산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일본, 미얀마, 한국 순이고 많은 아시아인이 살고 있는 브라질이나 미국, 호주 등이 아시아 이외 지역의 주요 생산국들입니다. 이들 주요 쌀 생산국들이 고품질과 저가로 무장한 채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자크 디오프 사무총장이 2004년을 '세계 쌀의 해'로 정하고 "쌀은 생명이다 (Rice is Life)"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보릿고개니 춘궁기니 하며 구호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로 굶주림을 해결했던 빈곤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단순하게 생존수단이나 배를 채우는 기아 해결의 방법쯤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생존가치와 문화적 삶의 목표를 향상시켜주고 농촌환경을 보존해주는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황금들판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가을의 들녘에서 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Y